

영어영문학 교육에 대한 하나의 반성적 시안

최 영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광 복 이후 한국의 대학에서 가장 호황을 누려온 학과의 하나가 영어영문학과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양적인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일본어 세대를 급격히 대체하듯이 새로운 대학이 생길 때마다 영문과는 거의 예외없이 생겨났다. 이제 광복 5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한국 대학의 영문학 교육의 실상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거나 현재의 체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학 영문과는 대부분의 경우 영문학과 영어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영어학과 영미 문학분야에서 유능한 학자와 문학인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1989년에 나온 『영어영문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참조).

한편, 영문학 연구 방법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 이상옥 교수는 영문학을 하는 목적을 대략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첫째 목적은 한국의 영문학자들이 영미문학의 본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영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해외의 문예이론들을 적극 수용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학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셋째는 영어라는 외국어와 영어권의 사회와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교양적 안목과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면서 동시에 서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민주적 이념, 평등사상, 논리적 판단, 비판적 사고, 창조적 능력과 같은 가치들의 습득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넷째는 앞서서 제시한 거창한 목표를 추

중하기 전에 우선 영어 구사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영어영문학』, 제37권 1호(1991), 279~280).

이같은 교육목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문과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느끼는 자괴감 중 하나는 영문과에 진학하는 소위 수험능력 점수가 높거나 내신 성적이 좋은 또는 본고사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 그래서 학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 만큼의 지적 성취도를 이루고서 졸업을 하는가라는 의문 앞에서 전혀 당당할 수가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양적인 증가가 보여주는 영문과 졸업생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양질의 교육과는 별개의 것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교육환경의 외적인 부실요인—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그간 간간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낙후성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육 내용의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신있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문과 졸업생이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대로 영어로 글쓰고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학의 영문과에서 실용영어를 가르치는 비중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설학원이나 대학 부설 언어연구원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문과 졸업생이 어느 정도의 실용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학과의 교과과정에 충실히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니고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실제로 법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가운데는 고시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듯이, 영문과를 찾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들

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계속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글쓰는 작업에 흥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장차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영문과를 택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시급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교과목을 운용하고 있지 못한 영문과의 현재의 상황에서 이같은 목적을 지닌 학생들을 영문학을 할 자질이 없는 학생들로 치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은 없겠는가.

현재 영문과의 교과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영문학 입문과정에 치중하고 있다. 이같은 입문과정은 심한 경우, 영문학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과목을 회색시켜서 학부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문과 교과목의 보편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배려나 또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수의 편의나 전공 영역에 맞추어서 편성된 것이 관계가 되는 탓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의 영문학과와 교과목은 대개의 경우 미국 대학의 국문과에 해당하는 영문과의 교과목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형시키지 않은 채로 선별적으로 직수입해서 사용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충분한 독서 지도를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미국의 대학생들이 자국의 문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영문과 교과목을 적절한 수정 없이 우리의 현실에 곧바로 받아 들여 온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문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문학의 원산지에 대한 경외감 또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원산지에서 직수입한 내용물을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수정, 가감, 개편, 보완하는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해왔다. 이처럼 외국 대학의 교과목을 직수입해 오는 일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또 다른 원인의 하나는 대학에서 외국 문학을 전수하는 교수들의 외국 유학 체험의 편협성과 편파성 또는 지엽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나라에서 학부 교육을 받았다고보다는 대학원에서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온 것이 그곳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의 전부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듯이, 실제로 학부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학부에서 가르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문학과에서 가르칠 때에 외형적인 모델은 쉽게 가져올 수가 있지만,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결국은 자신이 외국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얻은 경험에 주로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다룰 과목을 회색시켜서 학부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외국 문학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와 제한된 경험의 영역으로 인해서 각자가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운용하기가 쉽기 때문이며, 이같은 관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한국 대학의 영문과에서 학부 과정과 석사·박사 과정을 수료할 경우, 폭넓은 토대 위에서 점차로 세분되고 전문화되는 영역으로 진행해 가기보다는 좁은 토대 위에 고층 건물을 짓듯이 위태로울 정도의 좁은 토대에 빈약한 내용의 앙상한 건물이 세워질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다. 학부에서 배운 것을 석사과정에서 같은 교수 밑에서 반복해 배우고 이같은 반복 작업은 박사과정에서도 계속된다. 물론 양적인 면에서 정보의 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학문적 내용의 질적인 성숙도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학부생의 경우에는 영문학을 전공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세문학이나 르네상스문학같이 전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요구 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영문과의 학부 과정은 따라서 영문학 또는 영어학을 계속 전공하려는 학생들과 타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우선 대략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문학과 어학분야에 공통으로 기초가 되는 영어의 연습 또는 실제적인 영어의 활용법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영어 관련 교과목을 확충, 보완하고 새로이 개발하는 일이다. 둘째는 영어학과 영문학을 각기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한 입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영어 문화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기본이 되는 타문화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 소양과 안목을 키워주고, 이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문화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영문과의 경우 회화와 작문은 저학년에서 몰려있고, 고학년으로 가면 주로 전공과목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고급 영문법, 고급 영작문, 영어 실습, 논문 작성법 또는 영미 산문 강독, 고급 영어의 이해, 고급 영어 연설 연습, 연극 연습을 통한 영어 연습 등과 같은 과목을 통해서 고학년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영어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1,2학년에서만 기초적인 영어작문과 영어회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의 경우에는 진학이나 유학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서는 학원 등에서 배우는 길밖에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좀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일례로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고 기초적인 영문학에 대한 소양을 키우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동시에 영어의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과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시안으로 첫째는 1학년의 경우에 기초적 문법과 작문, 회화의 과정을, 2학년에는 고급 영작문 및 회화, 고급 영문법 연구과정을, 3학년에는 스피치 과목과 영어연극을 통한 실제적인 영어 구사력 및 논작법 또는 영자 신문이나 영어 저널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실용적인 글쓰기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학년에 가서는 영어로 토론하는 세미나 또는 한국문학 작품들을 공동으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해서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더욱 심도있는 훈련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어연극은 학생들이 일정 기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 협동하는 생활을 익히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효율적인 영어학습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동의 신문 제작이나 저널 제작 또는 번역작업은 학교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문과에서 이같이 번역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실력있는 번역가를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문학과가 학문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분야가 바로 정확하고 수준높은 번역으로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한국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일일 것이다. 의욕적인 소수의 학생들이 과외활동으로써 이같은 욕구들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체계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영문과에서 번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영문학 또는 영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영문과의 전공 교과과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는 영문학 또는 영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목을 더욱 많이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의 경우, 영문학 전반에 대한 개관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영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을 장르별로 선별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영문학 중 소설 분야에서는 지금의 교과과정에 있듯이 17·18세기의 영소설, 19·20세기의 영미소설을 전부 다루기보다는 소설장르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를 중심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소설작품들과 영·미 소설 중 대표작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소설에 대한 보다 손쉬운 접근과 폭넓은 이해를 돕는 길이 아닌가 한다. 유럽의 소설들은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현대의 소설을 다룰 경우에도 영어로 쓰여지거나 번역되어진 아프리카나 유럽, 남북미대륙, 호주, 아시아 등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는 영미 대학의 영문과에서 다루는 고대 및 중세의 영문학 과목을 개설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관심을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야 한다. 희곡 장르에 있어서도 19·20세기를 중심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극작가의 작품들과 함께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 희곡작품을 다루는 것이 희곡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 시의 경우에도 어느 특정한 시대에 국한시킨 연구보다는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즉 시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으며 시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문학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며, 훌륭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축적된 삶의 지혜를 얻는다. 문학연구는 따라서 고전을 중심으로 폭넓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영문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양고전의 전통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세문학이나 르네상스문학 또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학원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학부과정에서는 영문학이나 미국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한 것을 말과 글로써 또는 연극으로써 다양하게 표현하고 수업중에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문학작품의 영상화 또는 영상화를 통한 문학감상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영어학의 경우에도 학부의 경우에는 이론연구에 치중하기보다는 영어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영어 발달사와 영어를 공시적으로 고찰하는 과목들, 즉 영어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살피는 영어 음운론, 영어 형태론, 영어 통사론, 영어 의미론, 영어 음성학 등을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부 영어학 전문가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문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하나의 시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어 연습과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영문과 전 과정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따라서 영어 연습과목을 공통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개설하는데, 공통필수과목으로는 예를 들면 영문법(중급 및 고급), 영작문(중급 및 고급), 영어 회화(중급 및 고급), 영미 산문 강독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선택과목으로는 실무(시사)영어, 영자신문 워크숍, 스피치, 영어연극 워크숍, 창작 워크숍, 번역 워크숍 등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연습과목 가운데 영미 산문강독의 경우는 독해력을 키우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비판

적 안목을 키우고 훌륭한 문체를 읽히는 과정으로서, 이는 곧 좋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좋은 글쓰기와 말하기의 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선택과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목들의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의 계절학기를 적절히 이용해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 외국대학에서 어학 연수를 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 부설 외국어 연구원에서 영문과 교과목과 연계해서 강도 높은 외국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문학과 영어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교과목들은 필수 선택으로 한다. 영문학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영국 문학 개관 I·II(계속되는 과목), 미국 문학 I·II, 소설의 이해(유럽 문학 전통 안에서 영국 소설의 특징, 소설의 장르적 성격, 미국 소설의 특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시의 이해, 희곡의 이해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고학년에 가서는 소설과 영화, 비교문학, 아동문학, 세계문학, 여성문학, 문예비평, 문학과 심리학, 문학 비평, 번역 관련 과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영문과의 교과목은 획일적이고 융통성이 결여되어서 시대와 학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교과목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세계에서는 문화산업이 주도적인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보가 강력히 대두되는 가운데 영문과는 바로 한국에서 이같은 문화산업에 적극 참여해서 참신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중심 학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문화 비평가로서의 소양을 키워주고, 다양한 문화 매체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프트

웨어의 개발에서 문학적 상상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심미적 안목과 비판적 통찰력 그리고 격조높은 창조력을 키워 줘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 문화와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키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지녀야 한다. 번역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동시에 지니면서 한국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역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밖에도 영문과를 졸업하고서 언론 분야, 글

쓰는 분야(텔레비전, 방송의 스크립터), 번역 또는 통역의 분야, 문학 비평, 평론 또는 대중 매체의 비평 분야, 아동 문학, 영화 또는 연극 비평, 비즈니스 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들에게 타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최신 정보와 최첨단의 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은 앞으로의 영문과 생존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

최 영/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생처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연극의 이해』(공저) 등과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